

창세기서1 :1

02<...의 처음에」06, 하-님께서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느니라.

2

그런데 「그 땅은」03 모양도 없고 비어 있었다, 그리고 어두움이 첫-대양의 표면 위를 (덮었다). 그러나 {하-님의 바람은}106 그 물들의 표면 위를 휩쓸고 있었다.

1 :1

‘하-님께서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시기 02<시작할 때에,」06’

2

특별히 「그 땅은,」03 모양도 없고 비어 있었고 어두움이 첫-대양의 표면 위를 (덮었다). 그러나 {하-님의 바람은}106 그 물들의 표면 위를 휩쓸고 있었다.

3

그 후 하-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: 빛이 있어라! 그리고 빛이 있었다.

4

그리고 하-님께서는 {그 빛을}131 보셨다, 그거 아름답구나! 그래서, 하-님께서는 그 빛과 그 어두움 사이를 가르셨다.

.....

1) 창세기 1 :1의 אֶת־הָאֱרֶצַּתְּ를 원형st.abs으로 취급하는 번역문

אֶת־הָאֱרֶצַּתְּ를 수식을 받지 않는 원형 구문으로 취급하는 데서 ‘무’에서 ‘유’를 창조했다는 표현이 나왔다.

1,2,3절들을 순서대로 번역한다는 점과 אֶת־הָאֱרֶצַּתְּ를 원형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.

창세기 1 :1

처음에」06, 하-님께서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느니라.

2

그때에 「그 땅은」03 모양도 없고 비어 있었다, 그리고 어두움이 첫-대양의 표면 위를 (덮었다). 그러나 {하-님의 바람은}106 그 물들의 표면 위를 휩쓸고 있었다.

3

그리고 하-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: 빛이 있어라! 그리고 빛이 있었다.

2) 창세기 1 :1의 אֶת־הָאֱרֶצַּתְּ를 변형st.const으로 취급하는 번역문

אֶת־הָאֱרֶצַּתְּ를 변형으로 취급하면 1-2절을 한 문장으로 이어서 번역하게 되면서, אֶרֶץ를 אֶרֶץ A9로 취급한다. 이렇게 옮기면, 천지창조 이전에 물이나 땅이 대 혼돈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.

창세기 1 :1-2

02<...의 처음에」06, 하₂님께서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, 어두움이 첫-대양의 표면 위를 (덮었고), 「그 땅은」03 모양도 없고 비어 있었고 {하₂님의 바람은}106 그 물들의 표면 위를 휩쓸고 있었다.

3

그후 하₂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: 빛이 있어라! 그리고 빛이 있었다.

3) 창세1:2을 삽입절로 취급하는 번역문

1:2을 삽입절로 취급하면, 1-3절을 한 문장으로 구성하면서, **בְּחֹשֶׁךְ** 바요○메르가 3개 절들의 주동사 main verb가 된다. 1절은 시제절, 2절은 삽입절, 3절은 주절로 취급한다.

¹02<...의 처음에」06, 하₂님께서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--²어두움이 첫-대양의 표면 위를 (덮었고), 「그 땅은」03 모양도 없고 비어 있었고, {하₂님의 바람은}106 그 물들의 표면 위를 휩쓸고 있었다--³그후, 하₂님께서 말씀하셨다: 빛이 있어라! 그리고 빛이 있었다.

4) 창세1:2 하반절을 창조시작절로 취급하는 번역문

‘무’에서 ‘유’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, 물질의 대혼돈(무질서) 가운데서 신이 개입해서 창조를 시작하는 기록은 1:2절 하반절이라고 보는 견해다. 1절은 시제절, 2절은 삽입절, 3절은 주절로 취급한다(Humbert).

¹02<...의 처음에」06, 하₂님께서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, ²「그 땅은」03 모양도 없고 비어 있었다. 어두움이 첫-대양의 표면 위를 (덮었다). 그러나 {하₂님의 바람은}106 그 물들의 표면 위를 휩쓸고 있었다. ³그리고, 하₂님께서 말씀하셨다: 빛이 있어라! 그리고 빛이 있었다.

5) 본 역자의 번역문

번역 1)의 문제는 **בְּחֹשֶׁךְ**를 원형구문st.abs으로 취급해서 처음에」06,라고 옮긴 점이다. **בְּחֹשֶׁךְ**는 변형이기 때문에 ‘...의 처음에’라 옮겨야 한다. 번역 2), 3), 4)의 문제는 1절을 종속절, 시제절로 취급하면서 3절을 주절로 삼는다는 점이다. 이 점들을 보완 또는 수정해서, **בְּחֹשֶׁךְ**를 ‘...의 처음에’라 옮기고, 1절을 종속절이 아닌 주절principal sentence로 살려서 번역했다.

창세1 :1

...의 처음에」⁰⁶,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느니라.

2

그때에 「그 땅은」⁰³ 모양도 없고 비어 있었다, 그리고 어두움이 첫-대양의 표면 위
를 (덮었다). 그러나 {하나님의 바람은}¹⁰⁶ 그 물들의 표면 위를 휩쓸고 있었다.

3

그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: 빛이 있어라! 그리고 빛이 있었다.